

21세기를 향한 동양대학교의 제언

최 성 해 | 동양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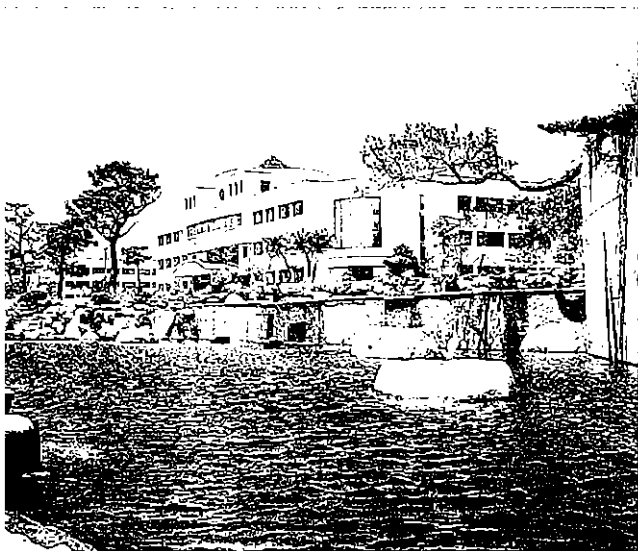
역사와의 예사롭지 않은 인연

소백산맥이 위용스러운 자태를 과시하며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예로부터 10승지(勝地)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의 땅으로 꼽혀온 풍기(豊基). 이 곳 풍기의 나지막한 한 자락에 동양대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풍수지리에 문외한이라도 동양대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이런 곳을 두고 바로 명당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감탄사를 절로 연발하게 된다. 주변의 수려한 풍경과 그 풍경에 조화되어 자연스

러움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시원한 캠퍼스는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풍기가 속한 영주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1,3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석사로 대표되는 새로운 불교문화와 조우하게 된다. 귀족중심의 불교에 회의를 느낀 의상대사가 불교 본연의 뜻을 전파하고자 선택한 곳이 바로 영주였다. 영주는 도도한 유교문화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한국에 최초로 성리학을 소개한 안향(安珦) 선생이 출생하신 곳이 풍기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순흥(順興) 지방이다. 그 안향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 사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수서원이 순흥에 세워졌으며, 소수서원을 설립한 분은 다름 아닌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 선생이었다. 풍기 군수로 계시던 퇴계 이황(李滉) 선생이 소수서원의 사액을 건의하여 명종 임금으로부터 친필 편액을 받게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주 지역에는 이후 여러 곳의 서원이 더 세워졌는데 지역 규모를 고려하면 영주의 서원 분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서민불교의 산실인 부석사, 최초의 고등 사학기관인 소수서원의 설립과 함께 새로운 문화흐름을 주도했던 유서 깊은 땅에 동양대학교가 들어선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라고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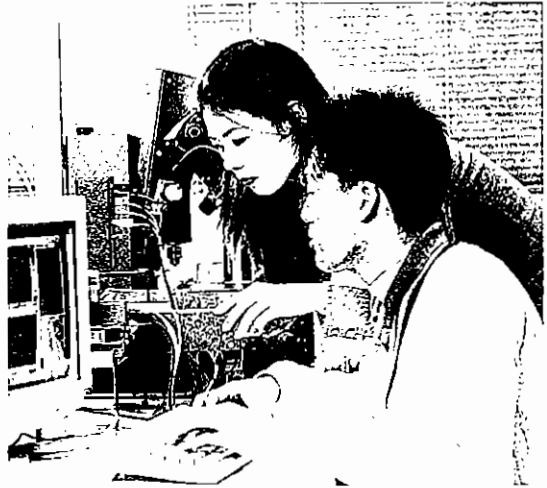
민족 명문사학을 준비하는 동양의 발자국

동양대학교는 경북 북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4년제 사립대학교 유치의 염원을 수렴하여 현암(玄巖) 최현우(崔鉉羽) 박사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된 인간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민족의 명문사학을 만든다는 목표로 출발한지 이제 7년이 되었다. 동양대학교는 7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내실 있는 발전을 거듭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명문사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 학과에는 30대의 젊고 유능한 교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연구소를 비롯한 관련 연구소와 평생교육원 등의 부속기관, 사단법인 산업제어기술원 등에서는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특히 산업제어기술원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각종 설비 및 메카트로닉스 장치의 핵심제어기술에 대한 국산화, 실용화, 상품화를 추구함으로써 명실공히 관련분야의 전문기술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기반 대학을 표방하는 동양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영주 지역만의 지속 가능한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 부문으로 생물산업, 농축산기계자동화, 유(儒)·불(佛)문화관광 서비스의 세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민족 사학을 자부하는 동양대학교는 전통성 인식과 같은 민족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교포 1.5세대 학생들을 초청하여 단학, 백견, 민속놀이 등 조국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양대학교 국제여름캠프'를 운영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한다.



국내 최초의 컴퓨터 분야 특성화 대학교

동양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컴퓨터 분야를 특성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학 특성화 및 교육(방법론) 특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1세기의 컴퓨터 산업, 지식 정보산업, 그리고 전자통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동양대학교의 컴퓨터 특성화 정책은 컴퓨터 교육환경 특성화, 컴퓨터 전문분야 특성화, 컴퓨터 응용분야 특성화라는 세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컴퓨터 교육환경의 특성화를 위해 대학 내에 종합정보시스템과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숙사 각 방마다 LAN(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하여 기숙사생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세계의 고급정보를 집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숙사를 건립하였다. 또 교육부의 가상대학 실험대학교로 지정된 동양대학교는 사이버 열람실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 강의의 모범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컴퓨터 전문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을 공중하는 동양인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공분야 심화를 위한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게 하고 있다. 또 산·학·연 컨소시엄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벤처기업

의 창업지원 및 학생 벤처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컴퓨터 응용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주 정보산업연구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산업연구단지에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컴퓨터 등 첨단 산업이 유치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산학 연계 체제 구축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준비된 지식인을 양성하는 지성의 전당

동양대학교는 단순한 기능인의 배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참된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화는 삶의 방식으로 탁월한 정보처리능력의 교육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적·윤리적 가치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에 맞추어 전통 선비사상에 기초한 인재,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 인류애를 실천하고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동양대학교는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첨단 기숙사는 규모와 시설 면에서 완벽함을 자랑한다. 소백산자락에 위치한 학생 기숙사는 1,0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내부에는 자유 학습실, 체력단련실, 당구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숙사생들을 위한 별도의 특강도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더 많은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기숙사와는 별도로 1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게스트룸도 운영하고 있다.

동양대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어학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학원에는 유능한 국내 및 Native Speaker 강사들이 초빙되어 학생들의 외국어 회화를 지도하고 있다.

본 대학은 타율적인 주입식 교육을 타파하고 새롭고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체계를 개발하는 등 유능한 졸업생의 배출을 위하여 엄격한 학사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제는 취업 부문에까지 학교에서 철저히 관리한다. 취업지도교수와 산학협동교수 임명, 기업체의 현장 실습 강화, 취업정보 시스템 구축, 60여 개 산학협약 연구소 및 기업체와의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취업을 지도하였다. 그 결과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적 한파에도 불구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한 1998년에는 순수 취업률 85%를 달성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에도 각각 91%와 87%의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기능과 인격을 겸비한 동양대인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양비전 21C

21세기에 도래할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하는 명문사학으로의 도

약을 지향하는 동양대학교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세 역사의 개척'이라는 창학이념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개척'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지향이다. 21세기에 도래할 지식기반 사회에는 창조적인 지식의 생산과 부가가치의 극대화와 더불어 그에 맞는 도덕적·윤리적 규범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동양대학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기능의 교육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한다.

둘째,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를 추구하는 대학'의 지향이다.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적인 도구는 컴퓨터이며 그것은 결국 미래 대학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능

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동양대학교는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교육방법 면에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자 한다.

셋째, '개방을 지향하는 대학'의 추구이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다양한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또 가상공간의 차원에서는 지역적 제약을 초월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양대학교는 학문 연마와 인재 양성을 통한 인류 발전이라는 위대한 이상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로 일컬어지는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동양대학교는 위대한 이상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